

포장기계산업 종합분석

최근 대내외의 산업·무역환경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EU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6개국에 의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유럽 경제지역의 활동, UR, GR, TR 등을 통한 세계 무역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강도있는 개혁과 1년이 지난 금융실명제의 여파, 개방의 가속화, 경기규제 제도개편, 북한의 변화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로 기술적 종속성을 면치 못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계공업의 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 포장기계분야 역시 기술축적 미비와 영세성으로 무역역조 현상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포장기계산업은 50~60년대 태동기를 거쳐 70~80년대 성장·안정기를 지나면서 연평균 30~40%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3~4년간의 경기침체와 세계 경쟁상대국의 치열한 수출정책이 확산, 87년 이후 최저 성장치인 10%대에 머물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단지 생산기종의 다양화 및 자동화, 국산화를 통해 일부 품목에서는 외국의 기종에 비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대등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포장기계의 수입을 어느 정도 억제해 포장기계 산업이 그 맥을 유지해 가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연초에는 잠시 업계가 활성화 되는 추세를 보이다 8월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로 국내 경기는 또다시 추락하다 최근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에서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경기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일말의 희망을 주는 것은 정부의 국산기계 우선구매정책과 금융지원 등이 외형상으로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과 일부 업체에 주문이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국내 포장기계 산업이 완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포장용 상품의 보호는 물론 마케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수작업에 의한 반복작업이 많이 필요한 관계

로 다수의 인력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이 되어버린 3D현상 등으로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작업공정의 기계화는 더욱 절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기계, 전기·전자를 결합한 메카트로닉스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첨단 포장기계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등장하고 있는 자동화된 기계들의 도입이 점차 늘어나면서 실제 기계업체들에선 기계제작에 나설 전문인력이 부족 등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부심하는 실정이다.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기계들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증가와 새로운 기계의 개발로 이어지는 기계산업은 항상 수요창출의 기회가 열려있어 기계제작업체는 이를 겨냥, 국산화,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포장기계 산업은 2~3년 전부터 자동화와 시스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포장기계는 보통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대량생산 공정에서는 종합포장시스템화를 통해 생산량 조절, 제품의 정확도, 공정 단축 등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더욱 최근 포장시스템은 제품포장 뿐만아니라 물적유통시스템인 팔레타이저와 유통, 자동창고까지 그 개념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포장기계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적용시켜 사용이 간편한 '지능포장기계'가 일반화돼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몇몇 기종에 초보적인 지능포장기계가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포장기계 업체들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기술축적의 부족과 경영구조, 전문인으로서의 긍지부족 등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국내 포장기계 제작업체 대부분이 10명 내외의 인적 구성을 지닌 영세업체들이며, 자본규모도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35%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제작용체가 자사 개발품보다는 수입판매 및 외국기계의 복제판매에 치중,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소규모 업체들은 자사 상표도 붙일 수 없는 하청계약으로 포장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국내 제조업체들이 수입기계를 선호하게 돼 다른 분야보다 무역역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내 제조업체 대다수가 이에 대한 대책에는 속수무책이다.

특히 대규모 업체들에선 이미 포장라인 모두를 외국 제품으로 교체하고 일부 단순한 작업에 소요되는 품목만 국산기계를 사용, 국산기계는 소모품으로 전략하고 있다.

가장 심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포장기계는 갈수록 수입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진공포장기, 충전기 등도 수입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포장기계의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여겨졌던 결속기도 메카트로닉스를 응용한 헤드의 장착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업계에 주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일부 업체에선 외국 제품의 복제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량하고 자동화 하는 기술축적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계의 핵심인 정밀도, 안정성, 설비자동화, 기계설비, 소재산업기술 등이 취약, 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장기계의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또다른 면은 수요자의 구별 사양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계획생산 비율이 주문생산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고 여기에 포장기계 제작이 이제까지 중소기업형 산업에 머물러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없었던 점도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현실적으로 포장기계산업은 기술개발의 부족으로 해외 마케팅에서 열세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지만 GR, TR의 과장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다소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이 뒷받침되지 않아 오히려 경쟁국에 잠식당할 우려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비한 임금상승률이 높아 경쟁력 열세가 더욱 심화되었고 기계류, 장비의 국산화를 담당하고 주요 시책을 전개하는 정부 또한

국산설비자금 금리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외국산 기계류의 수입을 부채질, 오히려 기계류의 국산화 시책에 걸림돌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즉 GR, UR, TR 등을 통한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 강화, 지역경제 블록의 가속화 등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경쟁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서 미래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국제화와 연구원의 창의성 증진 등 경영전략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는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화의 국제화전략 수립이 시급하고 국제 기술협력도 새롭게 조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포장기계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도입, 자체 기술개발, 기술이전의 동태적 유기적 결합을 꾀하고 기술혁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래 기술변화와 경제성 분석으로 세분화, 전문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내외 전략적 기술제휴를 증대시키고 기술개발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R&D분야 및 시장개방을 통한 기술경쟁 압력을 활용하고 선진국들의 특성에 따른 기술협력 조건과 내용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전략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포장기계 업계는 최근 몇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일부업체가 부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포장기계업계는 외국의 밀려오는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리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이 기회에 과당 덤핑경쟁이 없어지고 업체간 협조를 통해 개방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업체만이 외국의 거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한차례 포장기계 업계가 새로운 질서를 통한 구조재편이 예상된다.

계량충전 · 세병 · 정렬포장기

최근 수년간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신제품의 등장과 포장라인의 자동화, 수출선 다양화에 힘입어 대외 경쟁력과 함께 시장에서의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전기의 경우 통계청에 등록 · 조사된 두산, 금복스토크, 한동, 동우 등 규모면에서도 대형업체들과 중소기업체들 29개 업체에서 지난해 생산한 금액도 3백50억원 정도로 나타났고 여기에 수입된 5백50억원, 수출 40억원 등 모두 1천억원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기 분야는 최근 엔고의 영향으로 대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품종 다양화에 따른 대응으로 그 수요증가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분야도 대형 제조업체들에서 국산기계를 외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 수입비중이 55%이상 되

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5월까지 19.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충전라인의 계측 · 계량기 분야는 외국기계의 복제를 벗어나 우리업체 실정에 맞는 기계의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가 두드러졌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수출도 올해 들어 활기를 찾고 있다.

이 분야는 제조공정상 전체라인이 구성돼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이나 설치면적 등에서 규모가 큰 특징이 있지만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들로 올해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이 지속된다면 20% 이상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식품분야 및 제약 등 일부 업체들에선 아직도 국산기계의 수준을 의심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부진이 걸림돌로 남아있어 수요개척을 위한 마케팅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케이스 · 카토너

플판지 수요량의 감소와 함께 지난해 침체의 국면을 맞이했던 이 분야는 연 2백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국내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시장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백93억원대를 기록했던 케이스 및 카토너 시장은 올해 5월까지 수입 27억원, 수출 10억원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내수에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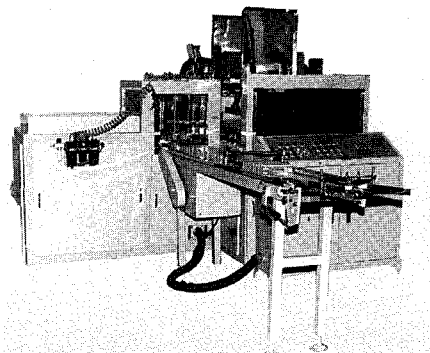
현재 10여개의 업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분야는 동성포장기계, 천세자동기계 등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체들의 활동에 따라서도 그 수요의 변화가 예상된다.

수요시장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큰 경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몇년간의 판매부진으로 성장이 주춤했던 관계로 올해는 신제품 등 기술경쟁과 가격경쟁에 국내 및 외국 업체가 뛰어들어 시장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제과, 병과 등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영향받아 설비의 증설 및 교체가 뒤따를 수도 있어 첨단 장비를 장착한 설비의 개발에 따라서는 국산 기계의 수요도 늘 것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출선 확보에 적극 나선다면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 진성기계의 외포장기계

결속·봉합·랩핑기

일본 제품의 유입은 줄었으나 대만제품의 물량이 늘어나 국내 업체와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결속기와 봉합기는 국내 업체간에도 과당경쟁이 심해 지나친 출혈로 제조원가 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다.

결속기의 경우 1백50~2백억원 시장에 5~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과 이태리의 제품까지 경쟁에 가세하여 시장판도는 예측할 수 없는 기류를 타고 있다.

일부 업체들에선 업체별 계약을 통한 수출 및 내수공략에 협력하고 있으나 실제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조체제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

이 가운데 수입비중은 31.9%로 그나마 무역역조 현상이 덜했던 결속기 분야도 수입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봉합기는 국내 메이커와 대만, 이태리의 3파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태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자체 개발품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입품을 복제하거나 개량하는 선에서 시판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앞선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외국 수입상들의 적극적인 판매활동에 비해 국내 제조업체들은 조직면에서 뒤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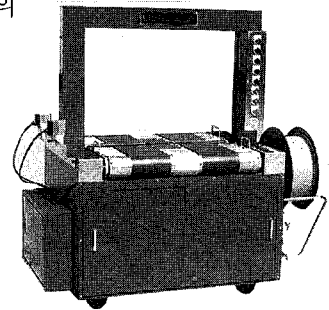
랩핑기는 그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기존 팔레타이징된 물품의 포장방법이 랩핑에서 접착 등으로 변하면서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다.

랩핑기는 국산 제품과 이태리, 미국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외관이나 정도, 로봇의 채용 등 결속 및 봉합기가 선진국의 수준에 접근해 있는 반면 국산제품에 비해 외국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다.

2~3년전부터 재편되기 시작한 시장질서로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뚜렷한 이 분야는 내년에는 또다른 변혁이 예상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5~6백억원의 시장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이 분야는 자금압박,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첨단기기를 응용한 제품으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포장기계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이 분야 역시 수출의 둔화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동서기계의 전자동결속기

인자기·라벨기·프린트기

침체된 포장기계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해 온 분야로 인자기와 라벨기는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것에서부터 간단한 부품의 변경만으로 여러 종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2~3년간 30%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호황을 맞고 있는 이 분야도 울들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자·라벨·프린터기의 경우 다품종 소량트화에 영향을 받아 제품 자체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날마다 고기능의 제품이 등장할 정도로 제품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여기에 잉크젯나 레이저마킹기 같은 첨단기능을 갖춘

제품이 등장하여 시장잠식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물류설비가 정착되기까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프린터기의 경우는 해상도가 높아져 선명도가 뛰어나고 인쇄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컬러프린터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모노에서 컬러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 역시 국내 업체의 수가 적고 기술력이 뒤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국 제품들 이지만 최근 국산화의 진전 속도가 빨라 수입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류공정의 확대에 따라 시장형태 및 규모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이 시장은 대략 연 4백억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축, 신축, 진공포장기

연간 3~4백억원의 시장으로 추정되는 이 분야는 신제품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도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분야는 정밀도에서 떨어지고 일부 부속품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관계로 외국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다.

진공포장기의 경우 연 2백억원의 시장쟁탈을 놓고 전국의 16개 전문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수출비중이 22.0%로 5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진공포장기의 경우는 그동안 주요 부품인 펌프 등이 기술격차로 인해 수입산 제품을 많이 선호하였으나 지난해부터는 기술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국산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에서 외국 유명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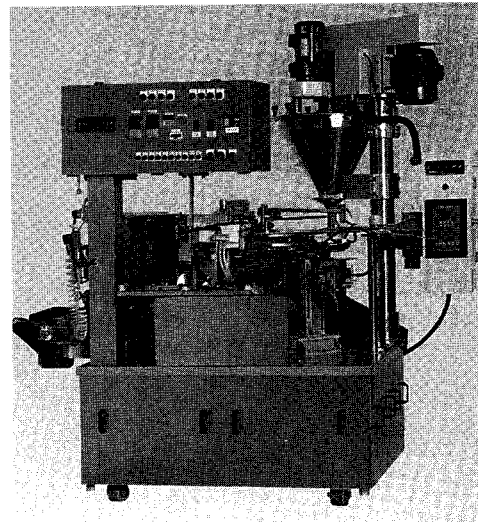
이 부분은 한국전자공업사가 앞서가고 있으며 뒤를 은성기계 등 신규업체들의 추격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수축 및 신축포장기는 포장재질인 필름류의 기능이 좋아짐에 따라 기계의 성능도 좋아지고 있지만 작업의 끝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꾸준한 국산화에 힘입어 어느정도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 제작업체의 수가 적고 매리트가 적은 이유로 활발한 생산 및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문구, 책, 각종 생활용품에 포장하던 것을 없앴으로써 수축포장기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당분간 시장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면 수출에 의한 특수가 기대된다.



▲ 한국전자공업사의 분체자동포장기

블리스터 · 스킨 · SP포장기

블리스터 포장기는 홍자기연을 비롯하여 부천기계, 한국기계 등 10여개 업체가 시장경쟁에 나서고 있으나 지난해와 올해 초 몇몇 업체가 부도가 나가거나 업종 전환으로 3~4개 업체에서만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이 급진장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로 내수시장에서 최근 소형 공구류, 가전제품, 완구 등 적용이 늘어나 호황을 맞기도 했으나 지난해부터 주춤해진 상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한다면 시장규모는 배 이상으로 신장되리란 지적이다.

주로 의약품 포장과 소형제품의 포장에 이용되는 만큼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들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정밀도와 위생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계자체 재질의 선택이 까다롭고 실제 수요는 급격하게 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국내 제작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제약업체들에서 사용하는 포장기의 80% 이상이 외국기계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분야의 포장기계들도 외국기계의 비율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술력이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수요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판매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골판지관련 주변기기

골판지와 관련된 기계들은 가공기계인 코루게이터, 합지기, 슬로터, 톱슨기, 스티처, 인쇄기 등 다양하다.

이 기계들은 대부분 일괄라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가격면에서도 고가인 것이 특징이다.

동양기계, 삼현정밀, 일경기계 등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업체들만 참여하고 있는데 내수의 비중이 90%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중동,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골판지업체들이 외국인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대한 교체나 보수시기에 국산기계로 교체하는 상황이 도래해야 내수에서 받을 넓힐 수 있다는 결론이다.

반면 소형 제조업체들이 라인 가운데 한가지씩 분리하여 설치하고 작업하는 업체가 많아 이들 업체의 활성화에 따라 기계제작업체의 희비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올들어 골판지를 이용한 포장의 수요가 느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수요의 증가도 기대해 볼만하다.

연초까지만 해도 신규 수요가 없어 보수 등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업체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10여개의 관련회사들이 외국의 최고 성능의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관계로 기계제작업체의 어려움을 크게 하고 있으며, 업체간 심한 경쟁으로 외국에서도 인식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처럼 전문인력의 부족이 업체의 기술력을 뒤지게 하고 있으나 외국 우수업체들과의 제휴 및 협력 등으로 점차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10% 내외의 성장으로 맥을 유지해왔던 이 분야는 올해에는 20%이상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오프셋, 마스타, 기타 인쇄기

오프셋 및 마스타 인쇄기는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으나 윤전기 같은 고정밀의 대형 인쇄기는 아직도 기술수준이 낙후된 상태이다.

이를 증명하듯 국내 인쇄업체들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90% 정도가 외국산이다. 인쇄기 시장은 인쇄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80년대 중반부터 호황을 누려왔으나 90년대 들어 인쇄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시장이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신규업체들도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업체에서 사용하는 설비들이 노후기계들이어 교체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인쇄기 시장의 확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지만 다색인쇄와 정밀도가 높은 다양화된 기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곡면인쇄기, 패드인쇄기, 명함인쇄기 등 소형인쇄기를 중심으로 한 국산화의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보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 분야도 중국을 필두로 동남아,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품목의 내수증가, 수출증가에 힘입어 급격한 판도변화도 기대된다.

인쇄기 분야도 최근 인쇄재질 및 잉크의 다양화로 점차 기계 한대로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요구돼 개발방향이 바뀌고 있다.

압출, 사출, 연포장 가공기

플라스틱 용기 및 공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사출·압출용 기계들은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 시장이 주춤하고 대형 업체들이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없어졌고 신제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상유지에 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밀도, 안정성 등 세밀한 부분에서 뒤지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여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들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생 펠릿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사출·압출기의 수요도 점차 늘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가능하다.

연포장가공기는 대부분 고정밀도를 요하고 있어 국산 기계보다는 외국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수입비중이 70%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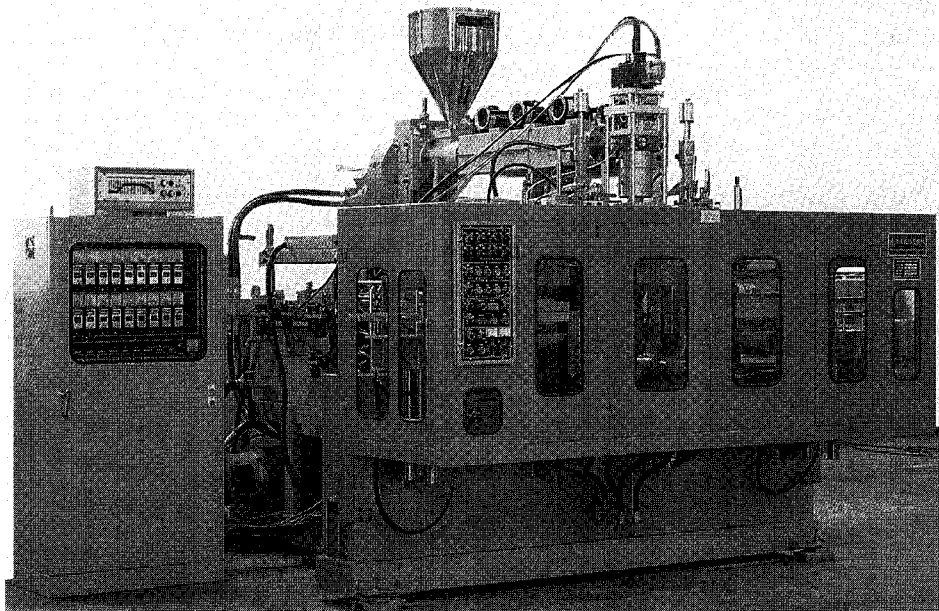
포장산업의 근간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이 분야는 다양한 가공법의 개발과 재질의 개발이 이루어짐에도 기계의 기술적 개발은 떨어진다.

또하나는 외국산 고성능의 기계를 설치해도 운영할 기술자가 없어 외국에서 기술자를 초빙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20여개의 업체가 연 1백억원을 밀도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기술개발을 통해 한정된 내수시장을 탈피, 수출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오 선 진 기자



◀ 강원유압의 플라스틱 가공기계